

대우일렉 글로벌 중저가 가전 선두주자로 키운다

동부그룹, 이재형 대표 등 경영진 선임 2020년까지 세계 10대 가전회사 도약

동부그룹의 일원이 된 대우일렉트로닉스가 '대우' 브랜드로 중저가 제품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미드로우'(Mid-low) 가전시장의 선두주자가 되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동부그룹은 지난 15일 1월부터 진행된 한 달여 간의 대우일렉 인수작업을 종결하고 주요 경영진을 선임했다. 이에 따라 대우일렉은 대우사태로 2000년 1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돌입한 지 13년 만에 '부활의

날갯짓'을 펼칠 전망이다.

동부그룹은 2월 말로 예정되었던 인수대금을 이날 납입하면서 인수작업을 보름 앞당겨 마무리했다. 인수대금은 총 인수금액 2726억 중 2280억원이다. 이 가운데 1380억원이 동부그룹이 계열사 등을 통해 자체 조달했으며 900억원은 재무적 투자자인 KTB 프라이빗에쿼티(PE)와 SBI의 자금이다.

잔금 446억원은 현재 추가로 협상



이재형 대표이사

을 진행 중인 재무적 투자가 확정되는 대로 3월 말까지 납입할 예정이다. 동부그룹은 대우일렉 자본 51%를 확보했으며 나머지 지분은 재무적 투자자들이 보유한다.

대우일렉 신임 대표이사는 인수팀을 진두지휘해온 이재형 동부라이텍·동부LED 부회장이 선임됐다.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이성 전 대우일렉 사장,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재국 전 CJ GLS 대표이사가 맡는다.

이재형 부회장은 경북고, 성균관대를 나와 삼성그룹 회장비서실, 삼성

물산 구조총괄, 정보통신부총장, 미주총괄을 거치며 전자·정보통신산업 분야에서 30년 이상 경험을 쌓았으며 2010년 4월 동부에 합류했다.

현재 광주에 유일한 국내공장을 둔 대우일렉은 그동안 인건과 구미 등에 걸쳐 3차례의 구조조정으로 한때 2만 5000명에 달하던 국내와 직원을 10분의 1인 2500명으로 줄이고 사업을 백색가전 중심으로 재편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4개 생산법인과 10개 판매법인, 20여 개의 지점·지사를 운영하는 등 영업력을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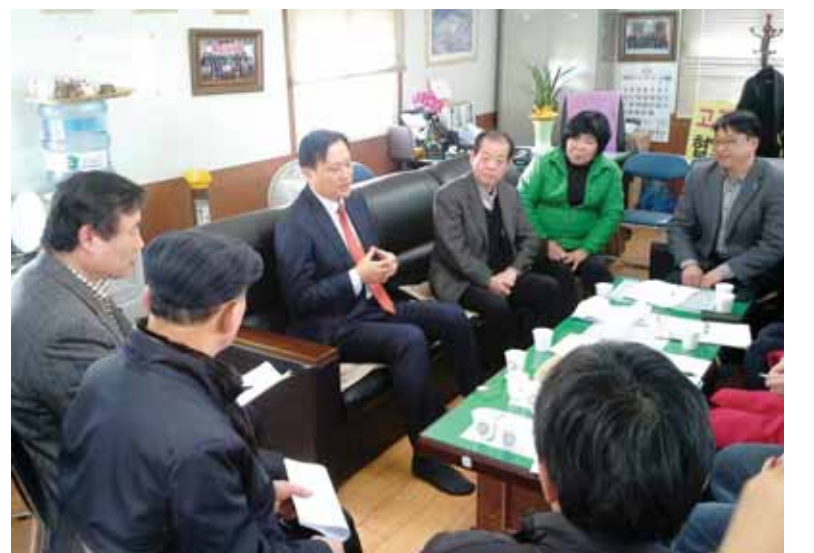
활발한 제3세계 시장 진출과 적극적인 현지 특화 전략으로 베트남 냉장고 시장 1위, 베네수엘라 전자레인지 시장 1위, 알제리 드럼세탁기 시장

1위를 달리고 있다. 국내 가전시장에서는 냉장고 19%, 세탁기 20%, 전자레인지 28% 수준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미드로우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 1단계로 아웃소싱을 통한 판매 제품 목록에 TV와 에어컨, 청소기, TV, 전기오븐, 식기세척기를 포함하겠다"며 "내년 말부터는 2단계로 현재 개발 중인 로봇청소기를 비롯한 정수기, 소형가전, LED조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3단계로 2015년 이후 연구개발(R&D) 성과를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스마트가전을 제품화하고 가정의료기기 사업에도 진출할 것"이라고 구상을 밝혔다.

이 부회장은 "미드로우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 1단계로 아웃소싱을 통한 판매 제품 목록에 TV와 에어컨, 청소기, TV, 전기오븐, 식기세척기를 포함하겠다"며 "내년 말부터는 2단계로 현재 개발 중인 로봇청소기를 비롯한 정수기, 소형가전, LED조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3단계로 2015년 이후 연구개발(R&D) 성과를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스마트가전을 제품화하고 가정의료기기 사업에도 진출할 것"이라고 구상을 밝혔다.

이 부회장은 "미드로우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 1단계로 아웃소싱을 통한 판매 제품 목록에 TV와 에어컨, 청소기, TV, 전기오븐, 식기세척기를 포함하겠다"며 "내년 말부터는 2단계로 현재 개발 중인 로봇청소기를 비롯한 정수기, 소형가전, LED조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3단계로 2015년 이후 연구개발(R&D) 성과를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스마트가전을 제품화하고 가정의료기기 사업에도 진출할 것"이라고 구상을 밝혔다.



전통시장 살리시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형진)은 15일 남광주시장에서 광주시 시장상인연합회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공항 입국장 면세점 재설치 추진

안효대의원 개정안 발의

공항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하는 법안이 다시 추진된다.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통해 입국하는 자에게도 외국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입국장 면세점 설치 법안은 16~18대 국회에서도 3번이나 발의됐으나 모두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안 의원은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라도 입국장 면세점이 꼭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국내 공항은 출국장에만 면세점이 있어 이곳을 이용한 고객들은 구매 제품을 외국여행 내내 갖고 다

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안 의원은 "이 탓에 인천공항 면세점이 아닌 해외 면세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이는 외화 낭비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민 사이에서도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9~2012년 사이 한국갤럽 등 9개 기관이 설문한 결과 최소 77%, 최대 90%가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세계 유명 공항 대부분이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법안 개정의 주요 이유로 들고 있다.

현재 세계 63개국 117개 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안 의원은 분석했다. 그러나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현대 액센트 1.6 16.5km 국산차중 연비 가장 좋아

국산차 중 연비가 가장 좋은 모델은 현대차의 액센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판매되고 있는 국산차 가운데 신연비가 가장 뛰어난 모델은 현대차 준중형 승용차 액센트 1.6디젤이다. 1리터를 주유하면 16.5km(자동차연비 기준)를 운행할 수 있다.

2위는 현대차 준중형 i30 1.6디젤(복합연비 16.2km/ℓ)에 돌아왔다.

기아차 경차인 모닝 1.0가솔린(15.2km/ℓ)이 그 뒤를 따랐고, 르노삼성사의 준중형 가솔린 승용차인 SM3도 연비가 좋은 편이다. 복합연비가 15.0km/ℓ이다.

한국지엠 경차 스파크(14.8km/ℓ), 기아차 준중형 K3 1.6 가솔린(14.0km/ℓ), 기아차 준중형 1.6 디젤 쏘울(14.0km/ℓ), 현대차



기아차 박주영 선수에 'K5 하이브리드' 전달 현대자동차 스페인 법인 리카르도 데 디에고(Ricardo De Diego) 마케팅 디렉터가 지난 15일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서 활약중인 박주영 선수에게 'K5 하이브리드'(현지명 옵티마 하이브리드)를 전달했다. 기아차는 2014 브라질 월드컵과 UEFA 유로 2012를 후원하는 등 다양한 국제 스포츠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기아자동차 제공)

건설·해운 2년 연속 적자 기업 속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 불황에 빠진 건설과 해운업계에서 2년 이상 영업활동으로 한 푼도 못 벌고 적자를 낸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17일 산업계와 예프연가이드에 따르면 2012회계연도 결산을 공개한 상장 해운·건설사들 중에서 대한해운이 2009년부터 4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냈다.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2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냈고 아직 실적 발표하지 않은 STX팬오션도 연속 적자를 낸 것으로 관측됐다.

특히 현대상선 순손실 규모는 해운업 기업불황과 환손실 등으로 9989억

원에 달했고 한진해운 순손실도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전년 8200억원, 작년엔 6380억원에 이른다.

삼호, 삼부토건, 쌍용건설, 한일건설, 금호산업 등 상장 건설사들도 2년 연속 적자를 냈고 경남기업은 작년엔 적자 전환했다. 신세계건설, KCC건설, 계룡건설 등 건설사 순위익은 전년 대비 반토막 났거나 최대 80% 가까이 급감했다. 또 대한해운, 쌍용건설, 한일건설 등 적자 기업들은 자기자본을 다 까먹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다음 달 말까지 이를 벗어나지 못하면 증시에서 퇴출된다. 아직 실

적을 공개하지 않은 범양건설, 남광토건, 박산건설 등 법정관리 건설사들도 작년 3분기 말 현재 자본잠식 상태로 퇴출위기에 놓일 전망이다.

부실기업의 매각이나 구조조정도 빠르게 거리고 있다. 최근 대한해운의 매각이 중단됐고 쌍용건설과 STX팬오션 매각도 시장침체로 사실상 잡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기침체 심화로 건설과 해운업계에 손실만 보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적자나 신용등급 하락, 부도 등 공포감이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전남 중기청, 중소기업 지원 기업 접수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이의준)이 '2013년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접수받는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이 사업은 3월12일까지 신청 및 접수 가능하며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사업규모 제한 폐지와 지원금액 상향(1000만원~3000만원)으로 혜택이 크게 늘어났다.

지원사업은 건강진단 연계형 컨설팅 및 수요자 선택형 컨설팅으로 구분된다. 지난해 지원규모는 총 125억 원으로 1497개 업체가 컨설팅을 받았으며 광주전남지역은 197개 업체가 12억 원을 지원받았다. 2013년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에 대한 순회 설

명회는 21일 오후 2시 광주전남지방 중소기업청 2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산업인력공단 외국인 고용허가제 전문통역원 모집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부가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전문통역원을 모집한다.

전문통역원은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방문해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외국인고용관리에 필요한 번역을 지원하는 등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모집언어는 베트남, 캄보디아 및 인도네시아 언어

이며 자격은 해당언어 관련학과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통번역 경력 1년 이상이어야 한다. 해당국가 국적 외국인의 경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있어야 한다.

서류접수는 26일까지이며 자세한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062-970-1752)로 하면 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M.H.타사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신제품 기적중얼기

59만원

특수가발 별매(윈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X,핀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재 011-607-5330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전적이거나 덤핑전적은 넣지 않습니다.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